



'정보부재 해소 · 인식 전환' 기회 의식변화 뚜렷

처음 접한 신선한 체험과정, 편견 · 오해불식 위해 국민교육 필요

한 국작물보호협회(회장염병만)가 2005년부터 홍보역량을 소비자 중심에 모으기로 한 가운데 도심지 여론 주도층에 대한 우리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작물보호협회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주부대학원 수강생 80명을 초청, 행사를 가진데 이어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청주소비자정보센터 소속 회원 40명을 초청, 우리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는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세미나」를 갖고 선진 연구 및 제조시설을 견학하는 등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한 행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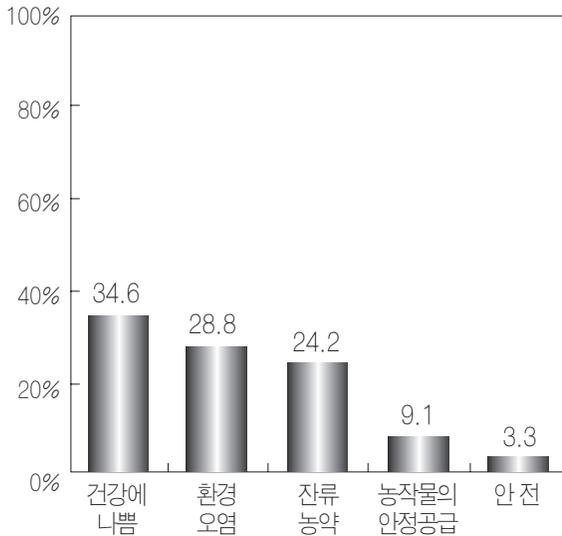
대전 (주)동부하이텍 농생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첫날 세미나에서 충남대 이규승 교

수와 전북대 전재철 교수는 강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의 오류와 농약의 역할 및 필요성, 안정적 식량확보의 중요성,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특히 도심지 주부들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소비자단체 종사자들의 올바른 인식과 역할을 당부했다. 또 세미나 후에는 동 연구소의 선진 연구 시설 및 온실동을 견학하였으며 이튿날에는 신젠타 코리아(주) 익산공장을 방문, 최신 자동화 제조시설을 견학하고 제조환경 및 생산현장 종사자들의 건강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소비자 초청, 농약안전성 세미나 직전 및 직후에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이 말하는 농약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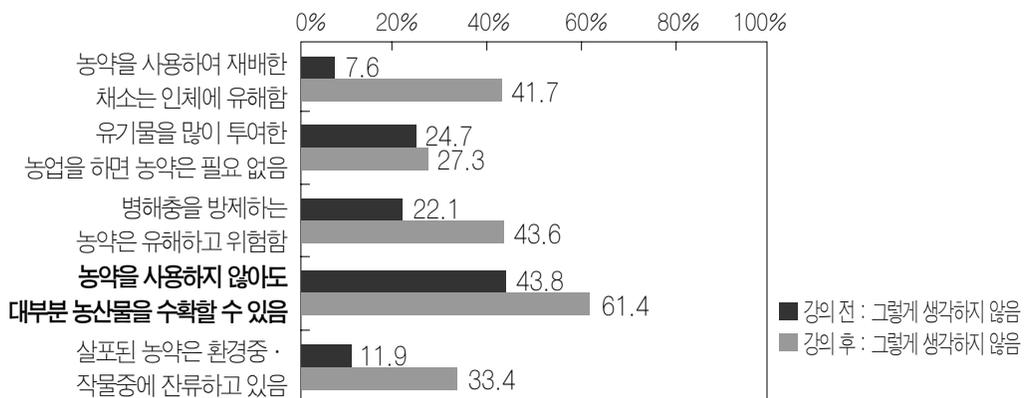
■ 농약하면 떠오르는 것



농약 및 우리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기 전 농약에 대한 참가자의 인식은 예상대로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농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참가자들은 「건강에 나쁨」 「환경오염」 「잔류농약」 등을 꼽아 부정적 인식이 무려 87.6%에 이르렀으며 「안전」 「농작물의 안정공급」은 12.4%에 그쳐 주책극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 농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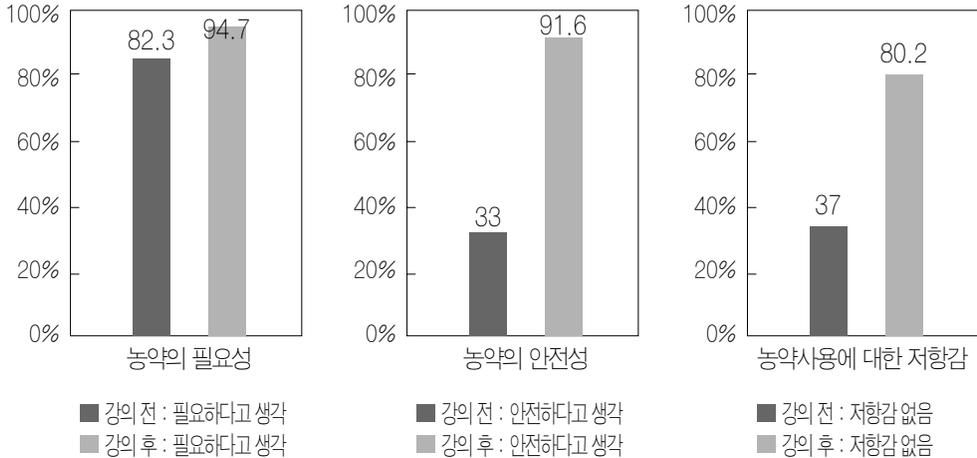
강의 전 농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는 「농약의 필요성」이나 「수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인상보다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확가능」, 「병해충을 방제하는 농약은 유해하고 위험」, 「유기물을 많이 투여하면 농약 필요없음」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의 후에는 인식의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농약의 필요성 · 안전성, 농약사용에 대한 저항감

세미나 참가자의 농약에 대한 이해의 효과는 예상보다 컸다. 특히, 농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의 전 · 후에 무관하게 모두 공감하였으며 강의 후에는 94.7%에 이를 만큼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성에 대한 의식도 강의 전 33%에서 강의 후에는 91.6%에 이르렀으며 농약사용에 대한 저항감도 월등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약사용에 대해 부정적 이유

농약사용에 대해서는 강의 전 참가자의 53%가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안전성이 불안하기 때문」이 38.9%로 가장 많았고 「자연적으로 재배된 것이 좋기 때문」이 33.6%,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 12%, 「특별한 이유 없이 감각적으로 싫기 때문」이 7.1%로 나타나 역시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의 후에는 「그래도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한다는 18.6%의 소신파(?)만이 「약간 부정적이다」고 답해 인식의 변화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 세미나 및 공장견학 후의 의식 · 행동변화

농약 세미나 후의 의식변화로써 「농약사용량과 농업인의 노동량, 생산량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함」이라는 이해가 많았고 「저독성을 인식하게 됨」, 「편견의 원인인 정보부재를 해소할 수 있었음」, 「농약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됨」, 「농약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 등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여전히 믿음이 안 감」이라고 답하는 소신파(?)도 눈에 띄었다. 개선점으로는 「여러 매체를 통해 농약 안전성을 홍보해 줄 것」과 「편견 · 오해 해소를 위해 국민교육이 꼭 필요 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Y